



즉시 배포용: 9/23/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뉴욕 방문을 위한 보안대비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주지사는 9월24일부터 9월26일까지 알바니의 비상 종합 상황실 및 뉴욕의 지역 관제 본부 센터를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주지사 **Andrew M. Cuomo**는 오늘 유엔의 총회와 겹치는 기간에 뉴욕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 기능을 증가시켰습니다. 주지사는 알바니의 비상 종합 상황실 및 뉴욕의 지역 관제 본부 센터를 9월 24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활성화할 방침이며 이곳들은 국토 안보부 본부, 긴급 구조 서비스 및 주요 국가 계획, 응답 기관의 직원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비상 종합 상황실은 상황 인식과 이루어지는 행사들에 대한 전략적인 관찰 상태를 유지하고, 계획 제공 및 물류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은 뉴욕시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사를 기념하는 매우 신나는 시간입니다.”라고 주지사 **Cuomo**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성한 방문기간동안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모든 예방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 독특한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 우리의 지역 및 연방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뉴욕 시민과 방문객들이 경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모두를 위해 즐거운 경험을 만드는데 협조해 주실것을 권장 합니다.”

국토 안보부, 비상 종합 상황실의 비상 서비스(DHSES)의 직원이 합류한 기관들은 비상 관리 사무소, 주 경찰, 군사 및 해군 업무, 화재 예방 및 제어 사무소, 상호 운용 및 긴급 통신 사무소, 운수부, 교통과, 공공 서비스 부서, 보건부, 미국 적십자를 포함 합니다.

워싱턴 디씨 방문에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의 처음이자 역사적인 방문을 위해 9월 24일 목요일 뉴욕 주에 도착 합니다. 교황은 9월 24일 세인트 패트릭 성당에서 열리는 저녁 기도 (저녁 예배)를 포함하여 짝찬 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교황은 9월 25일 금요일 아침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후 이스트 할렘에 있는 **Our Lady Queen of Angels School**에 방문하고 오후에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미사로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교황은 토요일 아침에 필라델피아로 떠날것입니다.

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여러 기관의 인력과 자산은 블루밍버그(오렌지 카운티), 존 에프 케네디 국제 공항 (퀸즈), 브랜튼우드 (서퍽 카운티) 에 위치한 국토 안보부의 전략 장소에 배치되게 됩니다. 주 방위군팀과 국토 안보부의 다수 보호 시설이 맨하탄에 지역에 주둔할 것이며,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비축 자산을 빠르게 운반할 수 있는 교통부의 “low-boy” 트레일러에 대기하며 되며 이러한 전략 장소에 배치되게 됩니다. 또한 교황이 방문하는 동안 뉴욕 주 재난 관리소의 직원이 연방 멀티 기관 조정 센터, 합동 정보 센터, 뉴욕 경찰 합동 운영 센터를 포함한 주요 운영 센터에서 대기할 것이며 금요일은 뉴욕/뉴저지의 항만 관리청 비상 운영 센터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토 안보부의 참모 지휘 직원은 미국 비밀 경호국, 연방 수사국, 연방 비상 관리 기관, 국토 안보부, 뉴욕 경찰국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공동으로 협력해 왔으며 뉴욕시의 주요 운영 센터에 배치될 것 입니다. 그들은 뉴욕주 비상 운영센터에 대한 의사결정 및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 지원에 대한 어떠한 요청이라도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유엔 총회 의회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호스팅 하는 명예는 전례없는 이벤트는 커다란 도전이며 연방, 주, 지방 차원의 협력하에 한달의 준비 기간이 소요 되었습니다”라고 **DHSES** 의원인 **John Melville**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이벤트를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긍정적이고 기억에 남을만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준 정부의 모든 층의 우리 파트너 들에게 감사를 포함합니다.”

미국 국토 안보부는 2015 교황의 뉴욕 방문에 지정되어 이벤트를 위한 국가 특별 안전과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Cuomo**는 이전에 이번달 말 교황의 뉴욕 방문기간에 여행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교통 서비스를 발표하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청과 항만청은 서비스를 늘리고 교황 행사에 때맞추어 추가 승무원도 대기시킬 것입니다. 교황 행사 접근은 티켓 보유자로 엄격히 제한되며, 티켓이 없는 분들은 교황이 방문하는 장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장소 가까운 거리는 많이 봉쇄되어 교통 혼잡과 보행자

분산이 유도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날에 맨해튼 통행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황 행사를 위해 뉴욕시 지하철, Metro-North Railroad, Long Island Rail Road 또는 PATH 열차를 타는 고객들은 미리 왕복 MetroCard 또는 열차표를 사야하고 일부 혼잡을 예상해야 합니다. 통행객들은 교통 상황 변화에 대해 즉각 통보받을 수 있도록 텍스트 및 이메일 알림을 교황 방문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MTA 알림은 www.mymtaalerts.com에서 그리고 항만청 알림은 www.paalerts.com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면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